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는 그 동안 꽤 많은 교과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는 소위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나름대로 큰 보람을 느끼고 삽니다. 학계에서는 교과서 쓰는 일을 큰 학문적 업적으로 쳐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좋은 교과서 한 권을 쓰는 것이 좋은 논문 한 편을 쓰는 것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좋은 교과서 덕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쓴 책에 대해 늘 칭찬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지요, 좀더 좋은 책으로 만들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부적절한 비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항변을 하고 싶은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의 분신과도 같은 책을 위해 변호해 주고 싶은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동안 내가 쓴 책에 관한 나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마치 하소연처럼 혹은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주기 바랍니다.

최근 어느 대학 경제학과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려져 있더군요. 우선 이 글을 읽고 누구의 어떤 책에 대해 이렇게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짐작해 보세요. 어떤 책인지 몰라도 이 글을 보면 정말로 허접한 책인가 보네요. 그렇지요?

이번 겨울계절학기 동안 이 책으로 미시공부를 했습니다.

강의와 함께 혼자 책을 보며 공부했는데, 자꾸 책이 허접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생각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해갔습니다.

문장도 썩 간결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표현도 많고, 명확하지도 못하고,

내용 깊이도 그다지 깊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느낌....

맨큐 경제원론 책처럼 뭔가 직관적인 깨달음을 잘 전달해주지도 못하고...(맨큐 경제학 책은 정말 좋았습니다.)

유학파시라 국어공부에 덜 신경을 쓰셔서 그런지 아이디어를 한글로 구체화시키는 데 좀 벼 벼대신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우리나라에서 미시쪽 교과서 중엔 베스트셀러던데...

불행하게도 이 혹평의 대상이 된 것은 다름 아닌 내 『미시경제학』 책입니다. 책이 좋고 나쁘고는 독자들의 평가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혹평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다만 너무 총체적으로 혹평을 해놓아서 어떻게 하면 책을 더 좋게 만들지 모르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난 기분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잘 믿지 않으실지 몰라도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내 책에 대한 평가 중 내가 좀더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이 책은 어디 어디에 약점이 있다.” 라는 구체적인 지적입니다. 거기엔 상당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말이지요. 내 책의 약점으로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학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억울한 평가입니다. 독자를 위해 의도적으로 수학의 사용을 자제했는데 그것을 이 책의 약점으로 지적하니 말입니다.

책을 쉽게 만들어 독자를 많이 끌어 모으려고 수학을 쓰지 않고 말로 풀어서 설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수학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늘 주장하듯 경제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논리와 직관입니다. 경제이론을 설명할 때 수학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학이 경제적 논리와 직관을 대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떤 독자는 수학을 쓰면 몇 줄로 설명을 끝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장황하게 말로 설명하느냐고 지적합니다. 나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수학을 써서 몇 줄로 설명을 끝내면 여러분의 직관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 일할 때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 뻔한 일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수학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문제는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훌륭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구태여 경제학원론을 배우면서, 미시경제이론을 배우면서 수학 때문에 골치를 썩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효과적인 공부의 방법도 될 수 없구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내 책이 비정상적으로 수학을 적게 쓰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정평 있는 교과서들을 훑어보면 내 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물론 유난히 수학을 많이 써서 설명하고 있는 책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의 특징일 뿐 그 자체가 장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학을 많이 써야 훌륭한 경제학이 될 수 있다는 편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듣는 것은 이 책으로 공부하면 어쩐지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읽을 때는 별로 힘이 들지 않는데 책을 덮고 나면 남는 부분이 적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책을 쉽게 써서 읽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한 나로서는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다고 수박 겉핥기로 읽어 나가면 당연히 남는 게 적지 않겠습니까? 몇 번씩 정성들여 읽으면 분명히 많은 것이 머리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내 책이 쉽게 보인다고 무시하지는 마세요. 내가 쓴 어느 책이든 논의의 수준은 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교과서들에 비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이나마 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씌어진 책들만 읽어온 여러분의 눈에 쉽게 보일 뿐이지 논의의 수준이 낮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훑어보는 정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또한 내 책의 어느 부분을 집어내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인간인지라 모든 분야에 대해 잘 알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책을 쓰다 보면 자연히 허점도 있을 수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내 책의 어느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어설피게 씌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기적으로 개정하면서 바로잡으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독자들 중에는 여러 책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 더 높은 수준에서 더 많은 분량을 설명하는 것을 큰 장점으로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수준을 높인다고, 무조건 많은 분량을 할애해 설명한다고 해서 좋은 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책은 그것이 대상으로 삼는 독자층이 있고,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그 책이 다루어야 할 여러 분야를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어야 좋은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칭찬하면서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이론이 소개되어 있더라.” 라고 감탄하는 독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이론이 그렇게 중요한 이론이라면 다른 책에서 왜 다루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 책의 저자만 그 이론을 알고 있다면 감탄할 만도 하겠지요. 다른 저자들이 뻔히 알면서도 그 이론을 다루지 않는 것은 너무 어렵다거나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독자들이 내 책의 어느 부분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정을 할 때 그 부분을 대폭 보강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연한 고집을 피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논의의 수준이나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교과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책이 완벽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어설픈 데가 많고 고쳐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닐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통해 고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 동안 내 책을 아껴준 여러 독자들을 위해서라도 좀더 좋은 책을 만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교과서 저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을 또 한 가지 토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강의는 모두 내가 직접 쓴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교과서로 가르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심각하게 나쁜 점이 하나 있더군요. 수강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을 보면 멍한 눈초리로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눈에 띄입니다. 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어차피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니 별 상관없다는 눈치 같습니다. 만약 똑같은 내용을 교과서 없이 가르쳤다면 집중해서 듣고 필기하느라 정신이 없었겠지요. 그리고는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뿌듯한 마음에서 그 자리를 떠나겠지요.

만약 교과서를 읽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대학을 다닐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교과서 몇 권만 있으면 대학의 문을 닫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설명이 잘 된 교과서라 할지라도 교수와의 직접 대면에서 배우는 것만큼은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고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이 착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를 직접 듣고 난 후에야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공부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수업 전에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미리 읽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 수업에 들어와 과연 자신의 이해가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자신이 이해한 바가 옳았다면 그대로 머릿속에 입력해두는 한편, 틀렸다는 것이 발견되면 맞게 고쳐서 입력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좀더 확실한 지식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동시에 배우는 기쁨

도 커질 수 있습니다.

강의 중에 돌아보면 책을 읽어 이미 다 아는 데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표정을 짓고 앉아 있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그 학생들의 얼굴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따분하다는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내 경험상 그런 학생 중에 뛰어난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내 강의를 거쳐 갔던 기라성 같은 존재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은 앞에서 내가 말한 올바른 공부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교과서 저자로서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교과서 읽기’ 식 강의를 한다는 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여러분들은 이 말을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요.) 솔직히 말해 그런 평을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내가 수업 중에 교과서를 읽은 적이 한 번도 없거니와, 교과서를 충실히 따라가는 수업방식을 그런 말로 폄하해도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강의를 교과서를 충실히 따라간다고 해서 무성의한 강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충실히 따라 가르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이 많은 효율적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과서는 일관된 논리적 흐름에 따라 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공부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물론 교과서가 잘 씌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더군다나 경제학처럼 논리적 맥락이 중요한 학문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요.

교과서의 저자는 그것 하나만 완전히 소화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견지에서 책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과서 한 권에 담겨 있는 지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없이 진행되는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노트해서 책으로 만든다고 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 가르치는 분이라도 그걸 책으로 묶으면 그 포괄범위가 별로 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학기의 강의에서 교과서 한 권을 착실하게 마스터한다면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운 셈이 됩니다.

내가 스스로 쓴 교과서와 다른 내용을 강의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우스운 일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일이기도 하구요. 이 분야에서는 “이런 순서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신념에서 책을 쓴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에 충실하게 가르쳐야지요. 만약 교과서 밖의 주제를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아예 교과서 안에 포함시키지 왜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한 학기의 강의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배웠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서 보면 교과서에 충실하게 강의하는 것이 엄청난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전달되는 경제학적 지식의 범위와 심도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교과서 읽기’ 식 강의를 한다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 강의의 경우에도 교과서를 쓰기 전에는 학생들이 강의한 내용을 받아 적기에 바빴습니다. 그 강의내용이 기존의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라, 자기네들이 정리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 사고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교과서로 만들어 내니까 이제는 ‘common knowledge’ 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그대로 가르치는데도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교과서를 쓴 사람이 젊어져야 할 숙명이라 생각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책들을 쓰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책을 아껴주는 독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과의 정신적 교류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 자산입

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이 내 책을 통해 무언가 영향을 받았다면 나로서는 그보다 더 뿌듯한 일이 없지요.